

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⑮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⑮

(규원사화)

■ 一沙權正孝 옮김



△광주시 하남공단 전경

앞으로 회사를 꾸려 가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은 구경할 수도 없었다. 다시 한 번 김 경제수석 비서관을 찾아가 회사입장을 설명하고 당장 긴급한 운전자금으로 6억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정부의 특별자금 지원에 힘입어 화천은 도산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한 기분과 함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을 떠올리곤 한다.

화천이 만든 기계는 화천의 신념이다

공작기계는 그 종류만도 수천 수만 가지나 된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파나사가 생산하는 CNC(Centralized Numerical Controler)와 독일 코브르크사의 연마기, 이태리 남바우드사가 생산하는 머시닝센터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제품들이다. 특히 남바우드사는 비행기를 제작하고 외부 회사로부터 초대형 공작기계만 주문받아 생산하는 공작기계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이다. 이태리 튀리도에 있는 남바우드사를 설명하는 소개 책자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남바우드사가 우리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방문해 본 남바우드사는 회사규모도 엄청났지만 그들만이 갖고 있는 머시닝센터의 기술 노하우가 특히 대단하였다. 나는 즉석에서 이 회사 기술대표와 사장을 만나 기술제휴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머시닝센터 기술제휴의 대가로 요구하는 로열티가 너무도 엄청났다. 처음에는 그것도 협상에 들어가기 앞서 띄우는 애드벌룬 정도란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허세가 아니라 실제로 요구하는 조건이었다. 그들은 몇날 며칠을 두고 협상을 벌여봐야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나는 너무 엄청난 로열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술제휴 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그 후 8년이 지난 1988년, 이번에는 거꾸로 남바우드사가 우리 화천에 합작회사 설립을 요구해 왔다. 남바우드사는 그 8년이 흐르는 동안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동안 꾸준한 기술개발로 가격 경쟁력도 뛰어난 자기내 제품을 못지않은 아시아의 한국이나 대만 제품을 찾기에 이르렀고, 과거에 한번 협상이었던 화천을 그 협상 대상으로 꼽은 것이었다.

나는 이같은 남바우드사의 제의를 받아들여 1988년 6월 유럽지역 출장길에 이태리로 들어가 남바우드사를 방문하였다. 8년 전 내가 필요해서 가본 남바우드사와 8년이 지난 1988년의 남바우드사는 상당히 변모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년 전 당시만 해도 이 회사에는 수천 명의 종업원들이 설 새 없이 움직이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의 공장 모습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기계만 돌아가고 있었다. 인력을 많이 써야 되는 생산라인은 아예 없애버리고 공장자동화를 이루어 부가가치가 높은 고가품 만을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들이 나를 만난 자리에서 제의한 내용은 ‘기계는 화천이 만들고 여기에 남바우드사의 상표를 붙여 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될 경우 화천의 이름으로 유럽시장에 대당 3만5천 달러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을 2-3배까지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었다. 나는 이런 제의에 내심 환영하면서 100% 받아들일 수 없는 구석이 있어 다음과 같은 제의를 했다.

“좋습니다. 나도 기계를 만들어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든 제품에 어찌 남바우드사 이

름만 넣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화천의 상호도 함께 넣기를 희망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판매 이익금을 일부 양보할 수는 있지만 화천 상호를 함께 표기하는 것만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8년 만에 재개한 남바우드사와의 합작 협상은 또 다시 무산되었다.

나는 이때 내가 주장한 제의에 대해 추호도 후회한 적이 없다. 아무리 돈 버는 일이 중요하다 해도 ‘화천’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팔아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화천’이란 이름으로 생산되는 제품들은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내 새의 피땀과 눈물이 배인 것들이요, 우리 화천인들의 자부심과 신념으로 빚어낸 작품이다. 이것들을 어찌 돈만 벌겠다고 이름도 없이 팔 수 있겠는가.

기술력만이 화천의 미래를 보장한다

화천은 1989년에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대를 돌파한 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 1,500억 원대로 올라섰고, 이후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되어왔다. 특히 수출은 1990년에 1,000만 달러를 돌파한 후 꾸준하게 늘어 최근 몇 년 동안은 3,000만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익도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 런대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간 화천은 기계공업 육성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1977년 6월8일), 기술개발 산업포장(1984년 2월1일), 수출유공 산업포장(1990년 11월5일), 장영실상(1995년 1월) 등 각종 상을 수여 차려나 수상했고 품질면에서도 각 부문에 걸쳐 ISO 9000시리즈 국제규격 인증을 모두 취득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술 우선으로 달려온 화천의 노력이 거둔 성과다.

그동안 화천은 종업원들의 후생복지에도 힘을 쏟아왔다. 사내 복지자금을 조성해서 여러 근로자들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대어줬고 대대적으로 우리 사주 구입을 지원했다. 또한 사원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을 비롯하여 저소득 사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1988년에는 화천기계를 공개하여 세 회사 중에서 제일 환영했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 이렇게 공개된 화천기계의 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돼 불과 6개월 만에 최고 3만 원대에 진입하는 호조를 보이며 회사의 자산가치를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성공적인 기업공개로 화천기계의 자본금은 공개 전의 4배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보된 자금이 회사 지속 성장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었음은 물론,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업계 전체가 휘청거릴 때 큰 바람을 타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힘이 되어주었다. 당시 국내 공작기계 업계에서는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부도상태를 맞고 감원사출에 휩싸였으나 화천만은 한 명의 사원도 내보내지 않고 정상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96년에는 국내 공작기계업계 최초로 머시닝센터와 CNC선반 분야에서 화천 고유모델을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2000년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제어 기술 부문에서도 화천의 고유모델을 개발해 고객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1995년 봄에는 독일의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설비메이커인 티센(Thyssen Industrie AG)사와 TPS(Thyssen Production Systems)-

KOREA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설비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당시 국내외 자동차공업은 2000년까지 세계 5위를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주요 부품의 생산설비는 대부분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분야에서 기술과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면 매우 전망이 밝으리라는 판단이 섰 것이다. 이리하여 1997년 5월까지 화천기공 인근에 첨단 생산설비를 갖춘 5천 평 규모의 공장을 짓고 선진 기술 수준의 사전 사후 서비스 능력도 갖추었다. 곧바로 가동에 들어가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블록과 헤드, 트랜스미션 케이스 가공용 공작기계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우리 화천의 미래는 지금 생산하고 있는 공작기계의 품질을 한 차원 끌어올려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 노하우를 다시 한 번 총동원하여 갈고 다듬어야 할 것이다.

영렬이는 어렸을 적부터 ‘근자식은 하늘이 낸다’는 말처럼 성격이 유순하고 무슨 일이나 시켰다하면 토를 다는 법 없이 순순하게 이행하고 처리하였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고 마음 씀씀이가 너그러운 것 같다. 영렬이가 커나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아래 동생들을 따스게 다독여줄 줄 알고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와도 다



△창사50주년기념(권승관 회장영렬사장)

투거나 싸우는 일이 없었다. 그런 한편으로 내면에 간직한 강한 고집이 있어서 한번 주장한 것은 관철될 때까지 기어코 밀고 나가는 추진력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으로 봐도 나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끝)

漫說 漫說

《莊子》曰：[天道運而無所積，故萬物成。帝道運而無所積，故天下歸。聖道運而無所積，故海內服。]此三者，皆藉物之性而無所牽滯也。夫帝王之德，以天地為宗，爾德為主，以率萬民，順萬事為用。昔者，神市氏既開創萬始，垂範萬類，體天道而導物性。及夫禮儉之世，而(後)(復)建都立國，分邦設牧，絀誠抱一，以則天範，秉天心以及于人心，扶萬善，滅萬惡。於是萬民以化，天下以靖，及其功完，則竟朝天而入神鄉。昭格幽跡，子懷我民，聖澤神律，洽被萬世，敷盛哉！夫妻承統，益修德政，廣采賢能，啓學而興教，聲聞大彰。嘉勳績位，能繼父祖之道，西失德，仗善征惡，威被天下，兆民慕化。於是振振神孫，繩繩繼位，歷千二百載而，國無絀逆篡奪之變，民無魚肉填充之禍。定南夷，平渝，討夏征殷，建侯于禹域；逐鹿，平阿哈，縱有禹之肆毒，乃竟服乎帝德。細民有犯，卒化於神韻，震域萬年之鴻基，既原於此也。

《장자》에 이르기를 [하늘의 도는 운행할 뿐 쌓이는 바가 없는 까닭에 만물이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고, 제왕의 도는 운행할 뿐 쌓이는 바가 없는 까닭에 천하가 돌아와 의지하게 되는 것이며, 성인의 도는 운행할 뿐 쌓이는 바가 없는 까닭에 나라 안이 모두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라 하였으니, 이 세 가지는 모두 사물의 본 모습에 의지하는 까닭에 막히는 바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무릇 제왕의 덕은 천지를 근본으로 삼고 도덕을 으뜸으로 삼으며, 만민을 통솔하고 만사를 바르게 하는 것을 그 쓰임으로 삼는다.

예전에 신시씨가 세계를 열고 만물을 비롯하게 하여 모든 무리에게 본보기를 드리우고, 하늘의 도를 체득하여 사물의 본 모습을 계도하였다. 단군 임금의 시대에 이르러 다시 도읍을 정하여 나라를 세우고 지방을 나누어 제후를 두니, 순수한 정성은 하나로 뭉쳐 곧 하늘 모범이 되었으며, 천성을 잡아 지쳐 이로 민심이 미치게 하고 모든 선을 복돋으며 모든 악을 없앴다. 모든 백성이 이로써 교화되고 천하가 이로써 편안히 다스려 지니, 그 말은 바를 다함에 이르러 마침내 하늘에 올라 신의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밝디밝게 하늘을 오르내리며 우리의 백성들을 아들과 같이 품으니 성인의 은택과 신인의 법도는 만세에 미치게 되느니라, 오후로 그 웅성함이며! 부루가 그 진통을 이어서 더욱 덕스러운 정치를 닦으며 어질고 능력 있는 이를 널리 가르쳐야 학문을 계도하고 널리 가르치니 명성이

이익을 보려고 충성을 가장한 사람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심화고전연구소 소장)

자치동감 제1화 이야기 131

사회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信義)이다. 한 번 한 약속은 설혹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도 지키는 사람이 많으면 바로 신의가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의를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면 이를 버리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이익을 보려고 충성을 내세우다가 일이 여의지 않게 되는 이를 버리는 시대가 있었다. 위진남북조 시대였고, 남조의 송<유송>에서 그러한 예를 이야기 하려고 한다.

동진을 무너트리고 세워진 송에서는 황제에 오른 유자업(劉子業)이 삼촌 유욱(劉彧)에게 쫓겨났다. 길으로는 황제에 오른 유자업이 못된 짓거리로 보면 해서 쫓아냈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전 황제인 효무제(孝武帝)의 아들들과 동생들 간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삼촌인 유욱이 황제에 오르고 나자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 가운데 원의(袁顛)는 삼남(壽陽)에서 유욱의 조카이며 유자업의 동생인 유자훈(劉子勳)을 황제에 오르게 한 다음에 건강에 조정을 둔 유욱에게 대항하였다. 원의는 이미 죽은 효무제의 아들을 황제에 올리는 것이 송왕조와 죽은 효무제에 대한 충성이라고 외친 것이다.

이러한 원의의 호소를 정말로 효무제에 대한 충성으로 알았는지 각지에 있는 많

은 사람들이 심양에 있는 유자훈의 조정의 편을 지지 하였다. 원의는 많은 장수들을 모아서 건강에 있는 유욱의 세력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삼촌인 유욱의 세력이 코너에 몰릴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완전히 승리하기도 전에 막판 매직을 일삼았다. 일찍 삼촌인을 때르르 쉰이었다.

한편 코너에 몰린 유욱의 건강에 있는 조정에서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이럴 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타났다. 위험과 간난을 무릅쓰고 심양에 있는 조정의 군사를 공격하였고, 드디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렇게 충성을 외치며 효무제의 아들을 황제로 올리고, 건강에 있는 유욱에게 반기를 들었던 일선에 있는 지휘관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시작할 때의 호기 찬 충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일선에서 일어났다. 원의에게 가장 충성한 장군은 유호였는데, 전제가 불리하게 되자 길로만 큰 소리를 치면서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고 겨우 별장을 내 보낸다. 이러한 상황에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다. 이제 유호는 자기 한 몸 살아서 달아날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한편 아직도 부하장군 유호의 생각을 모르는 원의는 유호에게 나가 싸울 것을 재촉만 했



자자하였다. 가복이 임금의 자리를 이어 능히 부왕과 조부의 도를 계승하였는데, 서방의 나라가 덕을 잃음에 좋은 것은 권장하고 나쁜 것은 정벌하여 없애니 그 위세가 천하에 미치고 민백성이 모두 그 교화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렇게 정당한 신인의 후손들이 1천2백년을 면면히 그 보위를 이어가니, 나라에는 임금을 시해하고 보위를 찬탈하는 변고가 없었으며 백성에게는 무참히 짓밟히는 재난이 없었다. 남이와 설유를 평정하고 하나라를 토벌하였으며, 은나라를 정벌하고 제후를 그 땅에 두었다. 또한 양속을 쫓아내고 아질을 평정하였으며, 비록 양골의 방자한 해독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제왕의 덕에 복종하였으며, 가난한 백성이 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마침내 신인의 운치에 교화되고 말았으니, 진역(震域)의 1만년에 이르는 커다란 기초가 이미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方外之人，名之以君子國，言其俗則曰[衣冠帶劍，好讓不爭]。郭璞贊之則曰：[有東方氣仁國，有君子 薰華，雅好禮讓，禮委論理]。胥餘避周，則黨化歸依。安(德) [魏] 一枝，綿延千年，遺裔尙繁。《王制》則記曰：[仁而好生，萬物 地而出]。仲尼歎其道之不行，則欲乘 浮海而居九夷，以君子所居爲說。許慎作《說文》則曰：[唯東夷人大，大人也。夷伯仁，仁者壽，有君子不死之國。]以孔子之乘 欲去，謂有以 東方朔者《神異(經) [經]》，則以[恭遜而不相犯，相譽而不相毀，見人有患，投死救之，名曰[善人]。此則言，能仁而復能勇，能恭而復能烈，敬美而不妄言。具眞人之美德，兼剛柔之良能也。余，於是乎，誇爲東夷之人也。

바깥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군자의 나라’라 이름하고, 그 풍속을 일컬어 [의복에 관을 쓰고 검을 차고 다녔으며, 양보를 좋아하고 서로 싸우지 않는다] 하였으며, 꺾박은 찬탄하여 이르기를 [동방에 기운이 어진 나라에는 군자가 있고 훈화(薰華)가 있으니, 우아하면서도 예절과 사양함을 좋아하고 예의로서 이치를 논한다 하였다. 서여(胥餘)는 주나라를 피해 물리나와 임금의 교화를 사모하여 귀의하고 나라의 한쪽 편에 편안히 머무르니, 면면히 1천년 동안을 그 후예들이 항상 번창하였다. 《왕제(王制)》에 기록되어 이르기를 [어질고도 기르기를 좋아하니 만

다. 그러자 살 궁리를 한 유호는 활로를 열겠다고 원의를 속이고 군사 2만 명을 가지고 도망했다. 밤늦게야 이를 알아챈 원의는 화가 났지만 역시 도망갈 궁리를 하였다. 그러나 길으로는 유호를 잡아 오겠다고 하면서 역시 달아났다. 이러하니 심양에서 세운 조정이 지탱할 수 없는 것을 불을 보듯 분명해 진 것이다.

유자훈은 원의의 거짓 충성에 속아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가 원의가 실패하자 하릴 없이 죽어야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의 형제들은 모두 삼촌에게 잡혀서 죽었다. 원의는 길으로는 달아간 효무제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황제에 올려야 된다는 명분을 내 걸었다. 그러나 그 내 걸은 충성은 진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일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구하려는 것뿐이었다. 때문에 목숨을 걸겠다고 한 충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익을 보려고 충성을 가장하는 사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를 구별할 줄 모르고 믿어 준다면 그 실패의 호된 결과는 자기가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의외로 많아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別世

안동 권五植 翁別世

태사묘(太師廟)수임과 북야공파 총회장을 역임한 권오식 응에서 안동에서 지난 12월 14일 7시 10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응은 투철한 송조정신으로 타의 모범을 보이면서 문사직에 기여했으며 특히 북야공파총회장을 지내면서 파조흥 발전에 크게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p>■ 총재단회비</p> <p>△권혁준(부총재) 100만원</p> <p>△권영달(부총재) 100만원</p> <p>소 계 200만원</p> <p>■ 중무위원회비</p> <p>△권대연(제천 검교공파) 20만원</p> <p>△권경환(상주 검교공파) 20만원</p> <p>△권호규(안동 대중원) 10만원</p> <p>(5월 20일 10만원 대의원회비 입금)</p> <p>△권종선(대구 시중공파) 20만원</p> <p>△권의철(서울 추밀공파) 20만원</p> <p>△권재복(부산 북야공파) 20만원</p> <p>소 계 110만원</p> <p>■ 대의원회비</p> <p>△권대근(수원 검교공파) 10만원</p> <p>△권운덕(고양 종파) 10만원</p> <p>△권태웅(서울 검교공파) 10만원</p> <p>△권오주(안동 북야공파) 10만원</p> <p>△권오기(안동 부장공파) 10만원</p> <p>△권순궁(대전 추밀공파) 10만원</p> <p>소 계 60만원</p> <p>■ 찬조금</p> <p>△권무탁(부총재) 20만원</p> <p>합 계 390만원</p>
--

물이 그 땅에 뿌리를 두고서 나온다] 하였으며, 중니는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한탄하여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구이(九夷)의 땅에 머물고 싶다 하였으니, 이는 군자가 거처하는 곳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하신이 《설문(說文)》에서 말하기를 [오직 동이만이 큰 것을 쫓으니 대인이 다. 동이의 풍속은 어질며 어진 자는 장수를 누리니 ‘군자의 나라’ ‘불사의 나라’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 하였으니, 이로써 ‘공자가 뗏목을 타고 가고 싶어하다’라는 말이 있게 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공헌했다. 지난 12월 16일 오전 11시, 많은 조문객이 침례한 가운데 3일장으로 안동시와 통연 산악리 선영에 안장했다. 유족으로는 유시용 여사와 장남 기욱(태림건설(주) 대표), 차남 기준, 삼남 기영, 딸(난희, 태희)를 두고 있다.